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퇴직연금 적립금 500조 원 돌파, 역대 최고 수익률(6.5%) 달성

– 적립금 400조 원 경신 1년 만에 500조 원 돌파 –

– 주요 내용 –

1 (적립금 501.4조원) DC·IRP 및 ETF로의 머니무브 가속화

- 전년말(431.7조원) 대비 약 70조원 증가하여, 400조원 경신 1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초고속 성장세**
- 운용방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24.6%)이 3년간 2배 성장하였으며, 제도유형별로는 DC 및 IRP(5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DB는 감소세
- **ETF 투자금액**(48.7조원)은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실적배당형(123.3조원)의 40%를 차지하는 등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2 (수익률 6.5%) 역대 최고치 달성이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아쉬운 수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래 최고**이나, 작년 증시(코스피 +75.6%), 국민연금(19.9%) 및 글로벌 연기금(미국 12.2%, 일본 12.3%)에 비해서는 **아쉬운 수준**
- 상품유형별로 **TDF**(20.1조원)은 13.7%의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데 반해 **디폴트옵션**(53.3조원)은 규모에 비해 낮은 수익률(3.7%)이었는데, 이는 예금 등으로만 운영되는 **안정형 비중(85.4%)**이 과중한데 기인

[심층분석] 상하위10% 수익률 격차는 운용에 대한 관심 차이에서 비롯

- **상위 10%**(수익률 19.5%)는 실적배당형 투자(적립금 84%)로 적립금 증가분의 67%가 **운용수익**인 반면,
- **하위 10%**(수익률 0.5%)는 원리금보장형 방치(적립금 74%)로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구조

3 (연금부자론) 평범한 김과장이 어떻게 연금부자가 되지?

- **통합연금포털**에서 **현재 상황**(국민연금 포함 전체 연금 예상수령액)을 **진단**해보고, 투자상품부터 사업자별 수수료까지 **한눈에 비교하여 선택**
- 직접 운용이 아직 두렵다면 **은퇴시점, 투자성향 맞춤형 자산배분 투자**를 도와주는 TDF,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전용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

* TDF 수익률 13.7%,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수익률 10.8% ('25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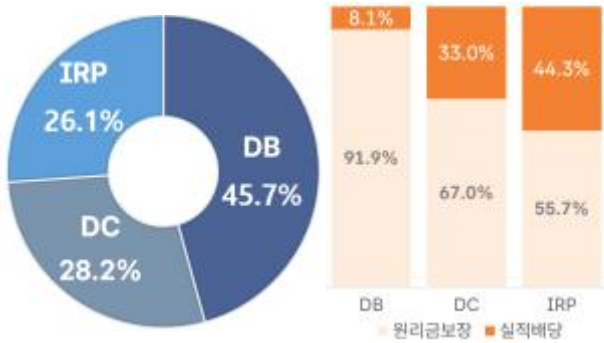
- 노동부·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퇴직연금 가이드북」**를 발간하여 퇴직연금의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

한 눈에 살펴보는 2025년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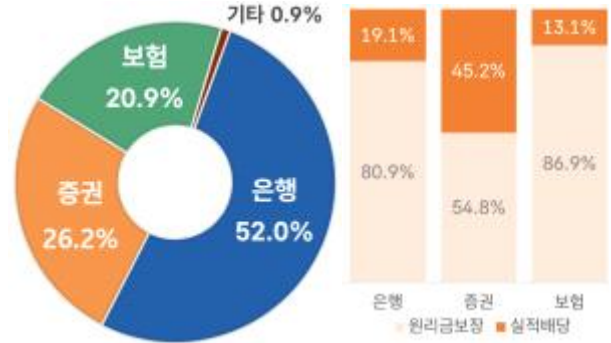
1 퇴직연금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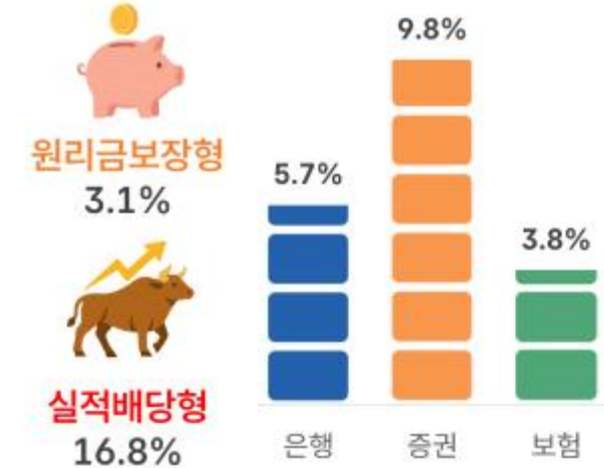
2 제도별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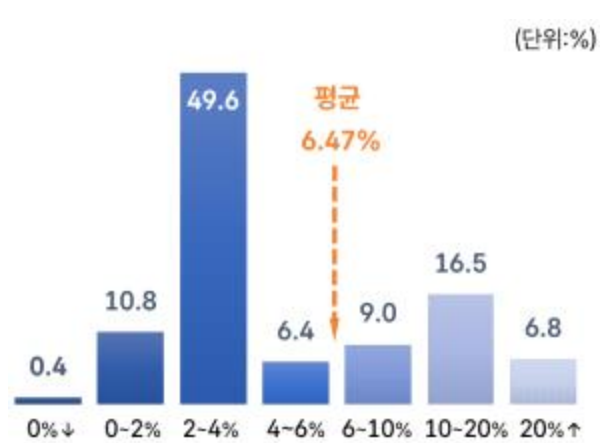
3 권역별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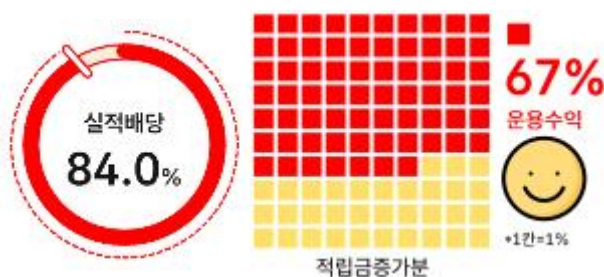
4 운용방법별·권역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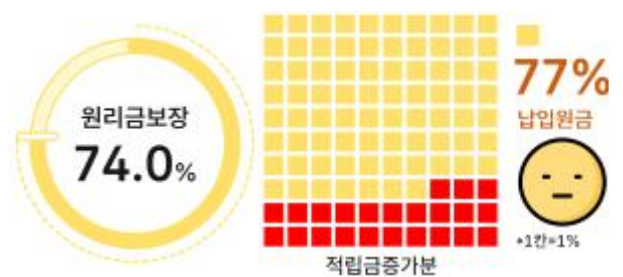
5 개인별수익률 분포 (DC·IRP)



6 상위 10% 운용현황



7 하위 10% 운용현황



I. 적립금
501.4조

400조 원 경신 1년만에 500조 원 돌파...
DC·IRP 및 ETF로의 머니무브 가속화

- 20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원으로 전년말(431.7조원) 대비 +69.7조원(+16.1%) 증가하여, 400조원 경신 1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적립금	255.5	295.6	335.9	382.4	431.7	501.4
증감률	15.5	15.7	13.6	13.8	12.9	16.1

- **(제도유형별)**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조원(26.1%) 순으로,

- IRP가 매년 3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IRP : ('23년) 75.6조원 → ('24년) 98.7조원 (+30.6%p) → ('25년) 130.9조원 (+32.6%p)

-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 378.1조원(75.4%), 실적배당형 123.3조원(24.6%)으로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쏠려있으며,

- DB는 대부분(91.9%)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반면, DC 및 IRP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전년 대비 10%p 가량 상승*하는 등 자산 배분 투자가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 실적배당형 운용 비중 : (DB) 8.1% (+1.3%p) (DC) 33.0% (+9.7%p) (IRP) 44.3% (+10.8%p)

- **(ETF의 급부상)**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금액은 48.7조원*으로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계좌 ETF 잔액 : ('23년) 9.0조원 (+104.5%) → ('24년) 21.0조원 (+133.3%) → ('25년) 48.7조원 (+131.9%)

- 실적배당형 적립금(123.3조)의 39.6%*를 차지하는 등 퇴직연금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실적배당형 적립금 내 ETF 비중 : ('23년) 18.3% → ('24년) 27.9% → ('25년) 39.6%

- 한편, 국내 증시 호황으로 KOSPI 지수 추종 ETF(패시브 기준)에 대한 투자금 또한 전년 대비 317.6% 증가*하였습니다.

* KOSPI200 인덱스 ETF 투자잔액 : ('24년) 0.34조원 → ('25년) 1.42조원 (+317.6% ↑)

- ETF는 주식, 채권 등 자산군별로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여 투자자 성향에 따른 상품 선별·조합을 통해 효과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23	2024	2025
퇴직연금계좌 ETF 잔액 (A)	9.0	21.0 (+133.3%)	48.7 (+131.9%)
실적배당형 적립금 (B)	49.1	75.2 (+53.2%)	123.3 (+64.0%)
실적배당형 內 ETF 비중 (A/B)	18.3%	27.9% (+9.6%p)	39.6% (+11.6%p)

- **(TDF의 자리매김)** 공모펀드의 경우, 예상 은퇴시점에 따라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TDF(생애주기펀드, Target Date Fund)가 투자 상위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TDF 투자금액은 20.1조원으로 전년 대비(13.4조원) 50%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TDF 순자산(25.6조원) 중 78.5%가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되고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수익률('25년 13.7%)을 시현하였습니다.

※ 세부 내용은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26.3.25. 보도)」 및 동 보도자료 「Ⅲ. 연금부자론 -TDF」 파트(p.9)를 참고

□ **(권역별)**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로는 은행 260.5조원(점유율 52.0%), 증권사 131.5조원(26.2%), 보험사 104.6조원(20.9%), 근로복지공단 4.5조원(0.9%)순으로

- 증권사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는 한편, 은행 및 보험사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증권사 점유율 추이 : ('23년) 22.7% → ('24년) 24.1% → ('25년) 26.2%

- 실적배당형 운용금액은 증권사 59.4조원(적립금의 45.2%), 은행 49.8조원(19.1%), 보험사 13.8조원(13.0%), 근로복지공단 0.3조원 순으로, 금융투자 거래가 용이한 증권사의 운용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권역별 실적배당형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5년말	49.8	19.1	59.4	45.2	13.1	14.9	0.7	3.9	0.3	6.3	123.3	24.6
'24년말	29.2	12.9	35.7	34.4	9.8	11.9	0.3	2.2	0.2	4.2	75.2	17.4
증감	20.6	6.2	23.7	10.8	3.3	3.0	0.4	1.7	0.1	2.1	48.1	7.2

* 비중은 권역별 적립금에서 실적배당형이 차지하는 비중

II. 수익률 6.47%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다소 아쉬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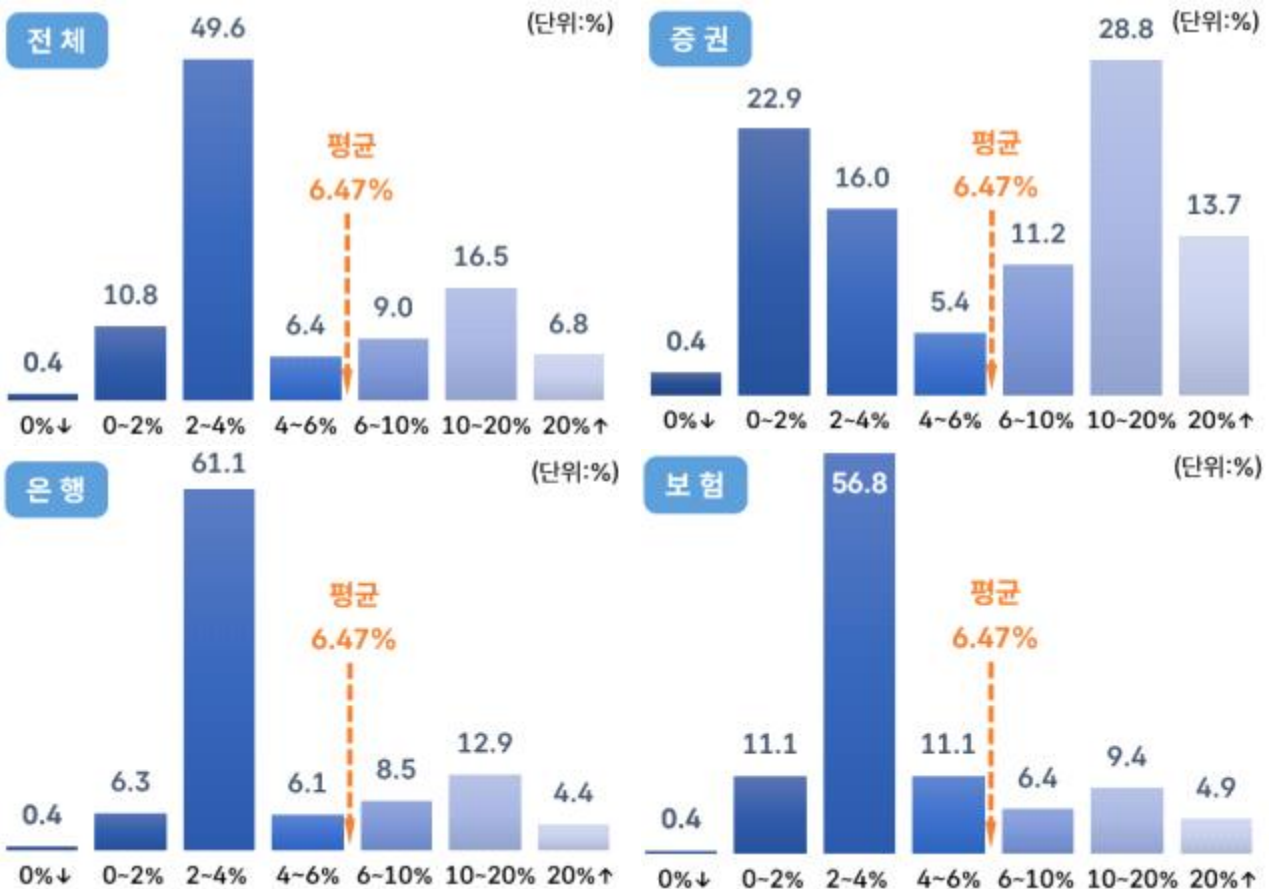
- 2025년 연간수익률은 6.47%로 2005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자산 배분으로 지난해 증시 호황*과 더불어 높은 수익률을 올린 국민연금(19.9%) 및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 KOSPI +75.63%, S&P +16.39%

** 미국(calPers) 12.2%, 일본(GPIF) 12.3%

-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이 3.09%, 실적배당형이 16.80%로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의 5배에 달합니다.
- **(제도유형별)** DB 3.53%, DC 8.47%, IRP 9.44%로, DC·IRP 등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권역별)** DC·IRP(합산)를 기준으로 은행·보험권역은 가입자 80%가 평균(6.47%)에 미치지 못한 반면, 증권권역은 수익률 10% 이상이 42.5%에 달하는 등 가입자 절반이 평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권역별 DC·IRP 수익률 구간별 가입자 비중



1 평균의 함정

□ **(절반은 여전히 2% 수익률)** 2025년 연간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인 6.47%를 기록했지만, 이 수치에는 **평균의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 상위 10% 그룹의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지만, 아직도 가입자 절반은 2%대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만 간신히 방어하는 형편입니다.

* 물가상승률 : ('23년) 3.6% → ('24년) 2.3% → ('25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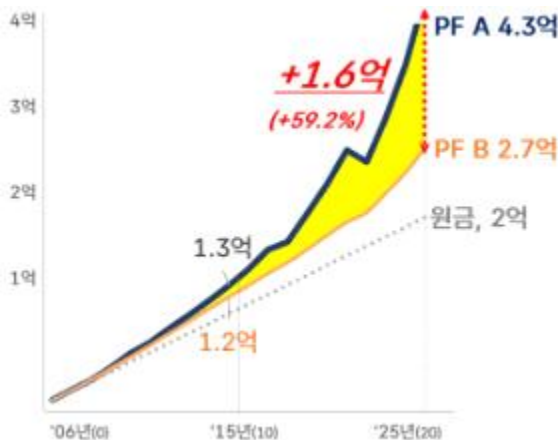
□ **(시간을 내 편으로)** 퇴직연금은 제도 특성상 은퇴 시점까지 장기간 운용해야 하며, 복리 효과로 인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매년 천만 원씩 20년(2006~2025년)동안 총 2억원을 부었다고 가정해봅시다. **(Portfolio A)**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하여 투자한 경우 약 4억 3천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Portfolio B)** 대부분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약 2억 7천만원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 2006년~2025년 중 실제 연기금(PF A) 및 퇴직연금(PF B)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

○ 똑같이 넣어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1.6배, 약 1억 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A) 적극 자산배분 vs (포트폴리오B) 원리금보장형 방치



(단위 : 만원)

구 분	PF A 적극배분	PF B 원리금운용	차이 (A-B)
2010년(5년차)	5,912	5,517	+394
2015년(10년차)	12,939	11,750	+1,189
2020년(15년차)	23,415	18,112	+5,303
2025년(20년차)	42,948	27,220	+15,728

* 납입원금은 2억원으로 동일

2

현명한 가입자(상위10%) vs 무관심한 가입자(하위10%)

□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률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 **(돈이 돈을 벌어오는 상위 10%)** 2025년 수익률 상위 10%는 실적배당형에 전체 적립금의 84%(DC·IRP합산)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적립금 증가액의 67%가 운용수익으로 채워졌습니다. 납입금이 그저 쌓이기만 한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수익률 상위 10%의 자산구성

(단위 : %)

운용방법		전체		은행		증권		보험	
		DC	IRP	DC	IRP	DC	IRP	DC	IRP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 등	7.1	5.1	10.4	6.4	3.0	3.3	0.9	1.9
	보험 등	4.1	2.0	1.1	1.3	0.9	0.7	21.6	19.4
	대기성자금	6.5	5.7	6.4	4.7	7.8	7.5	4.8	5.0
	정부보증채 등	0.3	0.5	0.2	0.3	0.8	0.8	0.1	0.7
	소계	18.1	13.3	18.2	12.8	12.5	12.3	27.5	27.0
실적 배당형	집합투자증권	80.3	85.3	81.8	87.2	86.6	86.7	63.1	54.2
	회사채 등	1.7	1.3	0.0	0.0	0.9	1.0	9.4	18.8
	소계	81.9	86.7	81.8	87.2	87.5	87.7	72.5	73.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계좌 유지기간 1년 이상, 25년말 적립금이 900만원 이상 계좌 중 수익률 상위 1~10%의 평균치

- **(무관심한 하위 10%)** 반면 2025년 수익률 하위 10%는 적립금의 74%를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했습니다. 적립금 증가액의 대부분(77%)이 납입 원금이었고, 운용수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자산시장이 환희로 가득 했지만 하위 10%의 계좌에는 넣은 만큼만 쌓였습니다. 자산 운용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익률 하위 10%의 자산구성

(단위 : %)

운용방법		전체		은행		증권		보험	
		DC	IRP	DC	IRP	DC	IRP	DC	IRP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 등	43.2	28.6	70.9	49.1	9.9	9.6	0.5	1.3
	보험 등	12.9	8.7	3.5	8.2	1.1	1.6	84.8	77.5
	대기성자금	15.3	22.8	11.2	18.5	28.0	29.4	2.7	5.6
	정부보증채 등	6.3	9.5	0.1	0.5	20.3	20.3	0.0	0.0
	소계	77.8	69.7	85.7	76.3	59.3	61.0	88.0	84.3
실적 배당형	집합투자증권	20.6	26.6	14.3	23.6	35.8	31.2	11.5	14.4
	회사채 등	1.6	3.7	0.0	0.1	4.9	7.8	0.5	1.3
	소계	22.2	30.3	14.3	23.7	40.7	39.0	12.0	15.7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계좌 유지기간 1년 이상, 25년말 적립금이 900만원 이상 계좌 중 수익률 하위 1~10%의 평균치

- 퇴직연금 운용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생업에 바쁘게 종사하다 보면 투자 공부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현실이지만, 그렇게 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운용 성과를 누리고 연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 통합연금포털 : 내 위치 확인하기

- 모든 일의 시작은 내 위치(현재 예상 연금수령액)를 확인하고, 목표(목표 연금 수령액)와 방향(자산운용계획)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내연금조회)**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코너에서는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개인연금까지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은퇴 시점의 예상 수령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막연하게만 느껴진다면, 우선 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세요.
- **(퇴직연금 비교공시)** 「퇴직연금 비교공시」 코너에서는 투자상품의 과거 수익률(1~10년)부터 수수료와 위험도까지 모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하는 계좌인 만큼 작은 수수료 차이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부 내용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 선택, 수익률 제고의 시작입니다.」(25.9.12. 보도) 참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조회 화면



2

운용 지원제도 : 나만의 자산관리사

- 요모조모 따져보아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생애주기펀드 - TDF)** 생애주기펀드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생애주기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에 가까워 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직접 운용이 부담스러운 가입자들도 실적배당형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참고로 '25년 TDF 연간 수익률은 13.7%로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6.5%)의 2배보다도 높습니다.
- ※ 세부 내용은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26.3.25. 보도) 참고
-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 되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추구하는 수익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떠한지 고민하여,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 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형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보험사의 원리금 보장보험 상품(이율보증형 보험계약)만으로 구성되어 기대수익률('25년 2.6%)이 낮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립투자형은 '25년말 기준 10.8%의 수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별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분기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니, 아직 디폴트옵션을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년말 디폴트옵션 투자유형별 연간수익률

(단위 : % 조원)

구 분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	전체
연간 수익률	14.93	10.81	7.47	2.63	3.69
적립금(비중)	1.4(2.6)	2.5(4.7)	3.9(7.3)	45.5(85.4)	53.3(100)

※ 세부 내용은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26.2.27. 보도) 참고

IV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이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조사(25년, 경총)에 따르면 적립금 운용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7.1%이었습니다.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의 직장인들은 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자산 배분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더 이상 방법을 몰라서 자산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국가별 5년 평균 수익률(19년~23년) : (우리나라) 2.42% (미국) 10.12% (호주) 7.42%

1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 (하반기 예정)

- 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평범한 가입자라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 균형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하반기 중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 주요 독자층인 초보투자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고, 실제 운용 사례(해외 선진국 사례 포함)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연금저축 운용 현황 보도자료」 발간 (6월 예정)

-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의 또 다른 핵심 수단인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1층)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2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 제도'와 더불어 '연금저축'(3층)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 환경 조성하고 자산 배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디폴트옵션이 도입 목적인 “수익률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 승인 취소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직접 운용하기를 어려워하는 가입자들은 전문 수탁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로, 가입자들이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매분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운용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남성욱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김형근 (044-202-7572)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실 장	김기복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황찬홍 (02-3145-5190)



2025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2026. 5.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목 차

I. 적립금 현황	1
1. 제도유형별	1
2. 운용방법별	2
3. 금융권역별	4
II. 수익률	5
1.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5
2.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5
3.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6
4. 장기수익률	7
III. 총비용부담률	8
IV. 수급형태	9
<붙임1> 2025년말 기준 퇴직연금 통계	10
<붙임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용어 설명	15

I

적립금 현황

1

제도유형별 (DB · DC · IRP)

□ (전체) '25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431.7조원) 대비 69.7조원(16.1%) 증가한 501.4조원*을 달성

* 적립금 추이(조원) : ('23년말) 382.4 → ('24년말) 431.7 → ('25년말) 501.4

○ (DB) DB는 228.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3조원(6.7%) 증가

- DB 적립금 비중은 45.7%로 가장 크나,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 (DC) DC는 141.6조원으로 전년 대비 23.2조원(19.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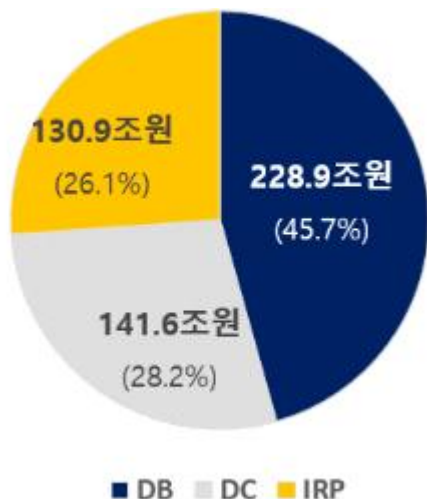
- DC 가입자 증가 등으로 작년에 이어 10% 후반대의 성장률 지속

○ (IRP) IRP는 130.9조원으로 전년 대비 32.2조원(3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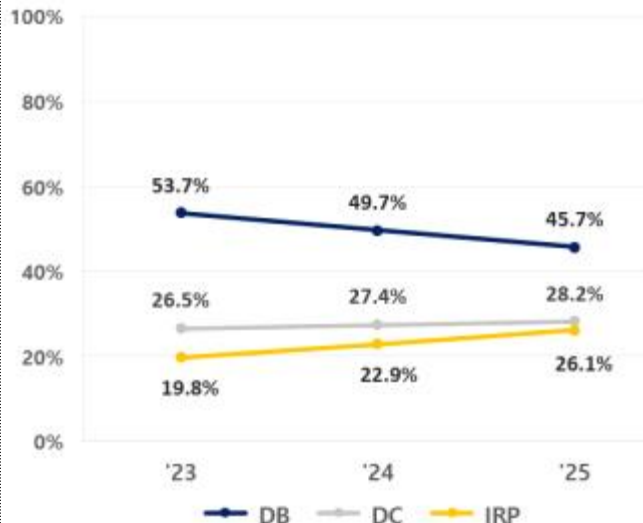
- IRP의 경우 세제혜택 및 사업자 홍보로 인한 납입액 증가 등으로 2년 연속 30%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 중

* IRP : ('23년) 75.6 → ('24년) 98.7조원 (+30.6%p) → ('25년) 130.9조원 (+32.6%p)

'25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23~'25년 제도유형별 적립금 비중 변화



적립금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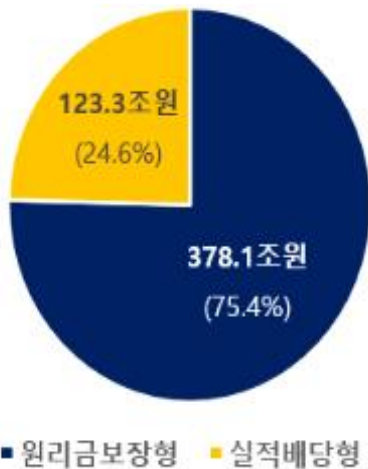
구 분	DB	DC	IRP	합 계	
'25년말 ¹⁾	228.9 (45.7)	141.6 (28.2)	130.9 (26.1)	501.4	
'24년말 ¹⁾	214.6 (49.7)	118.4 (27.4)	98.7 (22.9)	431.7	
증감 ¹⁾	14.3 (△4.0)	23.2 (0.8)	32.2 (3.2)	69.7	
증감률	6.7	19.6	32.6	16.1	
증감 내역	사용자 납입	32.0	26.8	-	58.8
	가입자 납입	-	0.1	11.5	11.6
	퇴직급여 지급	1.8	7.1	23.2	32.1
	퇴직급여 이전 ²⁾	10.8	14.2	-	25.1
	적립금 이전 ³⁾	26.7	18.8	43.4	88.9
	운용손익	7.9	8.8	12.5	29.3
	기타	5.4	1.8	2.7	9.9

- 1) () 안은 연도별 적립금합계 대비 비중 또는 비중의 증감치
 2) 퇴직시 DB·DC → IRP로 이전된 금액
 3) 계약이전 및 제도전환, 퇴직보험·퇴직신탁 → 퇴직연금으로 이전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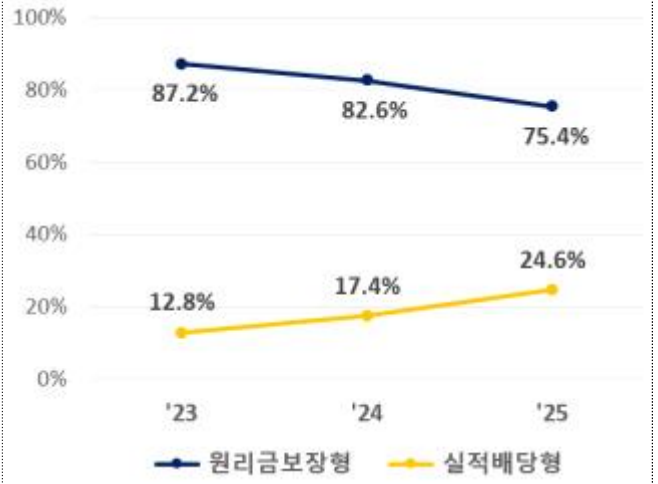
2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 · 실적배당형)

- **(전체)** 전체 적립금 501.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대기성자금 포함)이 378.1조원(75.4%), 실적배당형이 123.3조원(24.6%)
-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전년 대비 7.2%p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

'25년말 운용방법별 적립금 현황



'23~'25년 운용방법별 적립금 비중 추이



가. 제도유형별 추이

- 제도유형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DB 91.9%, DC 67.0%, IRP 55.7%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가 상대적으로 낮음
- 전년과 비교 시 DB는 1.3%p, DC는 9.7%p, IRP는 10.8%p 감소하는 등 모든 제도에서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운용방법별 적립금 운용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DB		DC		IRP		전 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28.9	100.0	141.6	100.0	130.9	100.0	501.4	100.0
원리금보장형	210.3	91.9	94.8	67.0	73.0	55.7	378.1	75.4
실적배당형	18.6	8.1	46.8	33.0	57.9	44.3	123.3	24.6

나. 운용방법별 상품 구성

-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보장형 상품 구성은 예·적금(147.8조원, 39.1%), 보험(143.5조원, 38.0%), ELB(37.1조원, 9.8%) 順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예·적금				보험상품 ²⁾		ELB ³⁾		기타 ⁴⁾		합계	
	은행 ¹⁾	비중	저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5년말	127.5	33.7	20.3	5.4	143.5	38.0	37.1	9.8	49.7	13.1	378.1	100.0
'24년말	130.9	30.3	23.6	5.5	125.3	29.0	34.1	7.9	42.4	9.8	356.4	100.0
증가율	△2.6		△14.0		14.5		8.8		17.2		6.1	
증감	△3.4	3.4	△3.3	△0.1	18.2	9.0	3.0	1.9	7.3	3.3	21.7	

1) 우체국 예·적금 포함

2) 금리확정형보험(GIC) 및 금리연동형보험(최저이율 보증)

3) 추가연계 파생결합사채(원금 이상 수익 보장,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미발생 등 요건)

4) 대기성자금(34.8조원), 예탁금, 국채, RP,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상품 구성은 집합투자증권(115.7조원, 93.8%), 회사채 등(6.4조원, 5.2%), 실적배당형 보험(1.2조원, 1.0%)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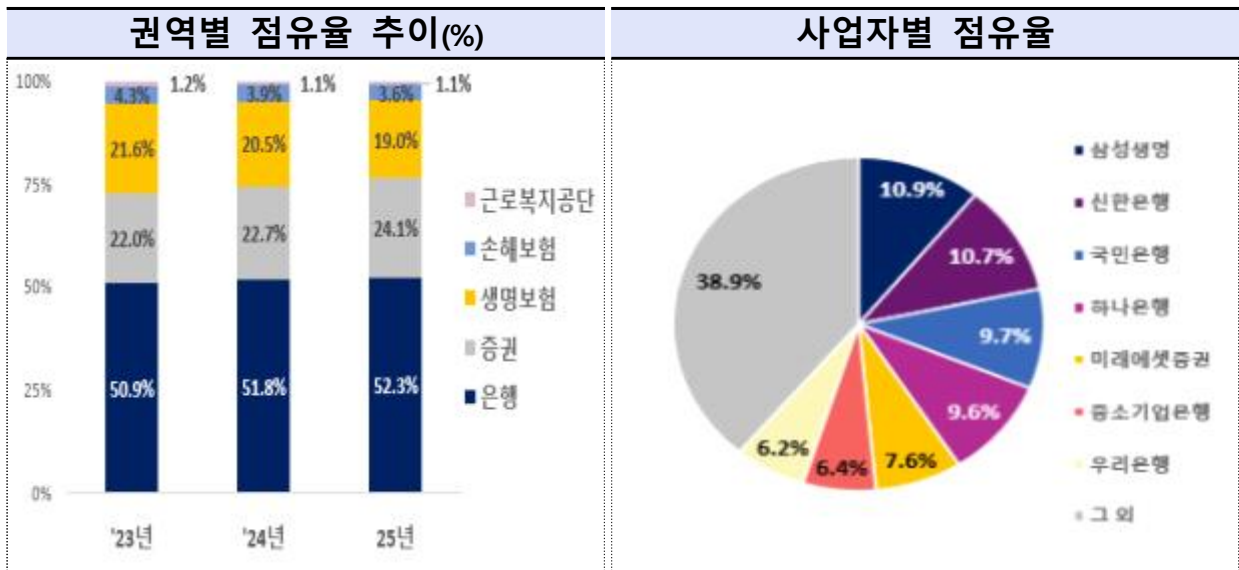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단위 : 조원, %, %p)

구 분	집합투자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회사채 등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5년말	115.7	93.8	1.2	1.0	6.4	5.2	123.3	100.0
'24년말	64.4	85.5	0.9	1.2	10.0	13.3	75.2	100.0
증가율	79.7		33.7		△36.0		64.0	
증 감	51.3	8.3	0.3	△0.2	△3.6	△8.1	48.1	

3 금융권역별 (운용관리기관 기준)

- 권역별 적립금은 은행이 260.5조원, 증권이 131.5조원, 생명보험 87.8조원, 손해보험 16.8조원, 근로복지공단 4.5조원 順
- 금액으로 보면 은행이 전년 대비 34.8조원(15.4%) 증가해 가장 컸으며, 증권이 27.6조원(26.6%), 생명보험이 6.1조원(7.5%) 증가
- 점유율로 보면 은행과 보험은 하락(각각 $\Delta 0.3\%p$, $\Delta 1.7\%p$)하였으나 증권은 상승(+2.1%p)



- 모든 권역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졌으나, 수치는 아직 높지 않음
- 증권 권역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45.2%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여타 권역은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은행 19.1%, 생보 14.9%, 손보 3.9%)

금융권역별 실적배당형 추이

(단위 : 조원, %, %p)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5년말	49.8	19.1	59.4	45.2	13.1	14.9	0.7	3.9	0.3	6.3	123.3	24.6
'24년말	29.2	12.9	35.7	34.4	9.8	11.9	0.3	2.2	0.2	4.2	75.2	17.4
증감	20.6	6.2	23.7	10.8	3.3	3.0	0.4	1.7	0.1	2.1	48.1	7.2

II

수익률

1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 **(전체)** 연간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6.47%로 전년 대비 1.7%p 상승
 - **(제도유형별)** IRP 9.44%, DC 8.47%, DB 3.53% 順으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 시현
 - * '25년 제도별 실적배당형 비중(%) : (DB) 8.1% (DC) 33.0% (IRP) 44.3%

2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 **(원리금보장형)** 전년(3.67%) 대비 0.58%p 하락한 3.09% 시현
 - '23년 후반부터 '25년에 걸친 금리 인하* 등에 주로 기인
 - * 기준금리 추이(%) : ('23.1) 3.5 → ('24.11) 3.0 → ('25.2) 2.75 → ('25.5) 2.5

제도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DB	DC	IRP	전 체	
전체	'25년말	3.53	8.47	9.44	6.47
	'24년말	4.04	5.18	5.86	4.77
	증감	△0.51	3.29	3.58	1.70

* 수수료 차감 후 적립금을 기반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실적배당형)** 전년(9.96%) 대비 6.84%p 상승한 16.80% 달성
 - '25년도 주식시장 수익률이 '24년 대비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
 - * 주가지수 변동률('24년→'25년) : (코스피) △9.6% → +75.6%, (S&P) +23.3% → +16.4%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전 체	
전체	'25년말	3.09	16.80	6.47
	'24년말	3.67	9.96	4.77
	증감	△0.58	6.84	1.70

3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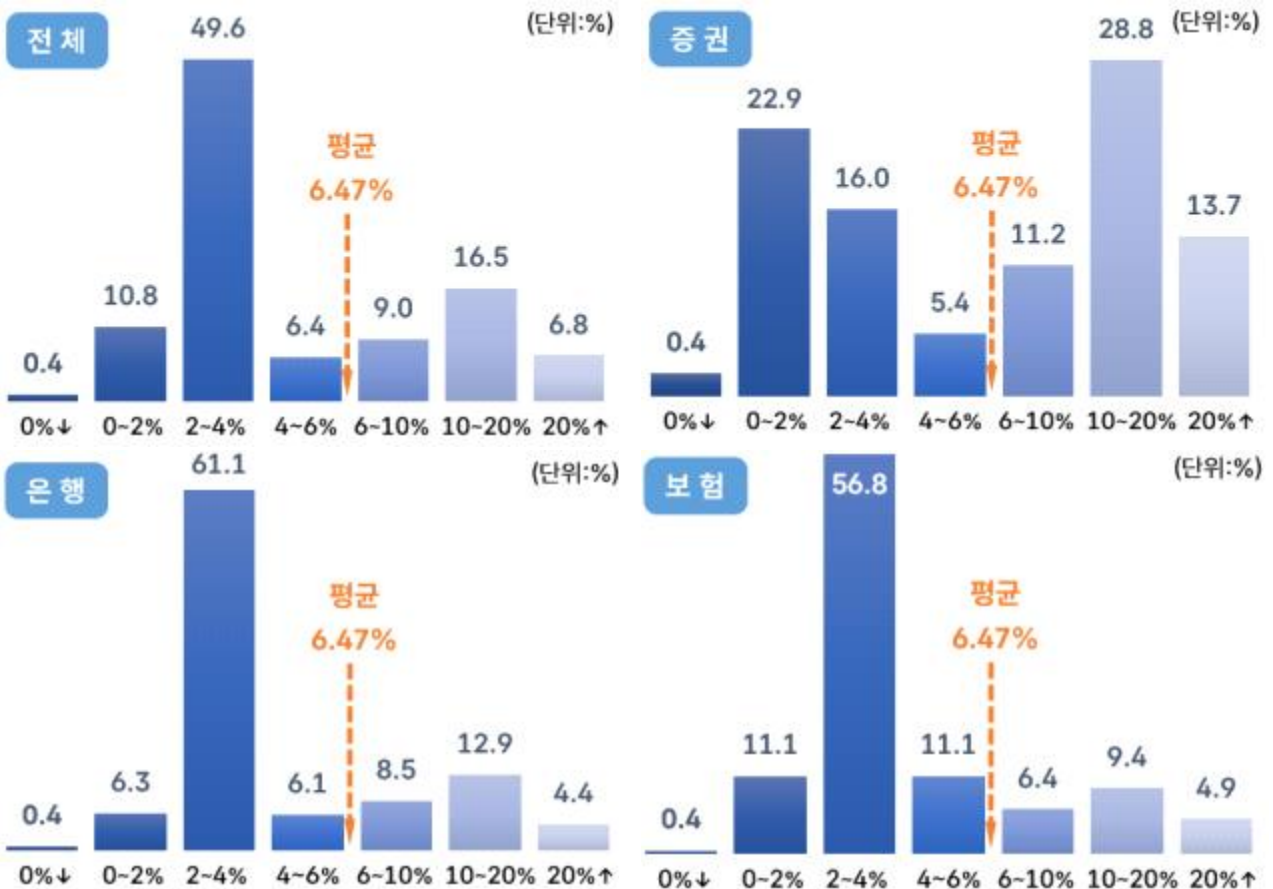
- (권역별) 증권이 수익률이 9.79%로 가장 높으며, 은행(5.27%), 생명보험(4.53%), 근로복지공단(4.16%), 손해보험(3.81%) 順
- 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권역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적배당형 비중이 큰 증권이 가장 크게 상승(3.46%p)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단위 : %, %p)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전체
'25년	5.70	9.79	4.53	3.81	4.16	6.47
'24년	4.25	6.33	4.43	3.93	3.60	4.77
증감	1.02	3.46	0.10	△0.12	0.56	1.50

- 개인별 수익률 구간별 분포(DC·IRP 합계)를 보면 증권은 전 구간에 고르게 나타난 반면, 타 권역은 원리금보장형 위주여서 2~4% 구간에 쏠림



4 장기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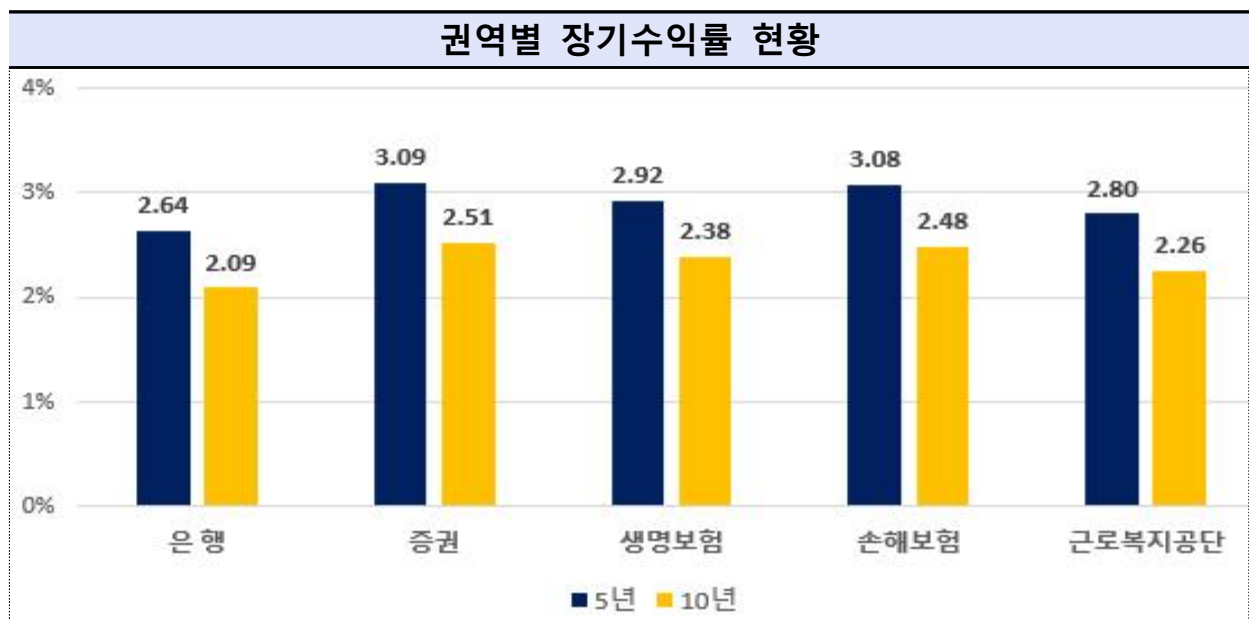
- **(전체)** '25년말 기준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3.29%와 2.64%를 시현
- **(제도유형별)** DB가 2.81%(5년) 및 2.27%(10년), DC가 3.75%(5년) 및 3.09%(10년), IRP가 3.83%(5년) 및 2.99%(10년)을 기록
-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이 2.68%(5년)·2.11%(10년), 실적배당형이 5.37%(5년)·4.48%(10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DB	DC	IRP	전체
전체	5년	2.81	3.75	3.83	3.29
	10년	2.27	3.09	2.99	2.64
원리금보장형	5년	2.76	2.69	2.43	2.68
	10년	2.16	2.25	1.78	2.11
실적배당형	5년	3.36	5.88	5.59	5.37
	10년	3.60	4.78	4.52	4.48

- **(권역별)** 증권 권역의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각각 3.09%, 2.51%)이 가장 높음



Ⅲ

총비용부담률

□ **(전체)** 총비용부담률*은 0.407%로 전년(0.414%) 대비 0.007%p 감소

*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 운용·자산 일평균적립금 합계

총비용부담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전 체
'25년	0.145	0.168	0.094	0.407
'24년	0.158	0.178	0.078	0.414
증감	△0.018	△0.010	0.016	△0.007

□ **(제도유형별)** DB와 DC는 전년 대비 총비용부담률이 각각 0.008%p, 0.001%p 하락하였고, IRP는 0.004%p 상승

○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및 운용손익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 부과 시행 등으로 DB·DC의 총비용부담률이 하락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 %p)

구 분	DB	DC	IRP	전 체
'25년	0.380	0.538	0.311	0.407
'24년	0.388	0.539	0.307	0.414
증감	△0.008	△0.001	0.004	△0.007

□ **(권역별)** 근로복지공단* 특성상 총비용부담률이 가장 낮으며(0.078%), 증권(0.335%), 손해보험(0.345%), 생명보험(0.399%), 은행(0.451%) 순

*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운용관리계약 체결

금융권역별 현황

(단위: %, %p)

구 분	은 행	증 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25년	0.451	0.335	0.399	0.345	0.078
'24년	0.474	0.345	0.371	0.339	0.076
증감	△0.023	△0.01	0.028	△0.045	0.002

IV

수급형태(연금·일시금)

- (수령비율) '25년 중 퇴직연금 수급(만 55세 이상)을 개시한 계좌(60.1만좌) 중 16.5%(9.9만좌)가 연금수령*을, 83.5%(50.2만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

* 수급 개시 계좌 중 연금수령 비율(%) : ('23년) 10.4 → ('24년) 13.0 → ('25년) 16.5

- 금액 기준으로는 총 23.9조원 중 61.6%*(14.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하여 처음으로 60%를 돌파

* 수급 개시 금액 중 연금수령 비율(%) : ('23년) 49.7% → ('24년) 57.0 → ('25년) 61.6

- (평균수령액) 연금 수령의 계좌당 평균 수령액은 1억 4,891만원으로, 일시금 수령시의 평균 수령액(1,833만원)의 8.13배 수준

-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수록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단위 : 좌, 억원, %)

구 분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 계	
	좌	비 중	좌	비 중	좌	비 중
계좌수(A)	98,941	16.5	501,955	83.5	600,896	100.0
금액(B)	147,336	61.6	91,993	38.4	239,329	100.0
계좌당 금액(B/A)	1.49	-	0.18	-	0.40	-

- (수령주기) '25년말 현재 연금을 수령중인 계좌(24.8만좌)의 75.9% (18.8만좌)가 月 단위로 수령

수령주기별 연금수령 현황

(단위 : 좌, %)

구 분	월		분기		반기		년		기타		계	
	좌	비 중	좌	비 중	좌	비 중	좌	비 중	좌	비 중	좌	비 중
계좌수	188,004	75.9	3,023	1.2	1,264	0.51	32,558	13.1	22,889	9.2	247,738	100.0

1. 적립금 규모

□ **운용관리계약 기준(잔액기준)**

(단위 : 억원, %)

권역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은행	'25.12월	1,018,192	44.5	790,904	56.5	14,392	91.0	782,108	59.8	2,605,596	52.0
	'24.12월	933,505	43.5	689,975	59.0	13,243	91.1	620,975	62.9	2,257,698	52.3
증권	'25.12월	467,423	20.4	382,305	27.3	752	4.8	46,4563	35.5	1,315,044	26.2
	'24.12월	448,405	20.9	272,027	23.3	647	4.5	318,197	32.2	1,039,276	24.1
생보	'25.12월	661,359	28.9	159,333	11.4	570	3.6	57,441	4.4	878,704	17.5
	'24.12월	633,180	29.5	141,411	12.1	545	3.7	43,233	4.4	818,368	19.0
손보	'25.12월	142,507	6.2	21,602	1.5	336	2.1	4,603	0.4	168,746	3.4
	'24.12월	130,649	6.1	21,007	1.8	40	0.3	4,594	0.5	156,290	3.6
근로복지공단	'25.12월	-	-	45,837	3.3	64	0.4	41	0.0	45,943	0.9
	'24.12월	-	-	45,270	3.9	60	0.4	43	0.0	45,373	1.1
계	'25.12월	2,289,483	45.7	1,399,982	27.9	15,812	0.3	1,308,757	26.1	5,014,034	100.0
	'24.12월	2,145,739	49.7	1,169,690	27.1	14,535	0.3	987,041	22.9	4,317,005	100.0

※ 권역간 비중이며, 근로복지공단은 DB 미취급

2. 적립금 운용 현황

□ 제도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526,907	23.0	429,188	30.7	7,497	47.4	282,776	21.6	1,246,368	24.9
	예·적금(저축은행)	38,495	1.7	59,427	4.2	779	4.9	104,638	8.0	203,339	4.1
	예·적금(우체국)	8,881	0.4	7,317	0.5	68	0.4	11,879	0.9	28,145	0.6
	예탁금(한증금)	13,422	0.6	9,970	0.7	54	0.3	13,108	1.0	36,554	0.7
	금리확정형 보험	1,127,534	49.2	164,461	11.7	367	2.3	86,315	6.6	1,378,677	27.5
	금리연동형 보험	3,681	0.2	35,783	2.6	276	1.7	16,961	1.3	56,702	1.1
	국채	2,103	0.1	9,591	0.7	15	0.1	23,152	1.8	34,861	0.7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9	0.0	-	-	1,103	0.1	1,112	0.0
	원리금보장형 ELB	342,785	15.0	10,687	0.8	54	0.3	17,345	1.3	370,872	7.4
	RP	3,118	0.1	1,637	0.1	3	0.0	1,403	0.1	6,162	0.1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239	0.0	472	0.0	-	-	363	0.0	649	0.0
	소계	2,067,167	90.3	728,117	52.0	9,114	57.6	559,043	42.7	3,363,441	67.1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416	0.0	8,643	0.6	20	0.1	2,956	0.2	12,035	0.2
	집합투자증권	164,827	7.2	440,562	31.5	3,188	20.2	548,446	41.9	1,157,022	23.1
	회사채 등	20,941	0.9	15,178	1.1	18	0.1	27,819	2.1	63,984	1.3
	소계	186,184	8.1	464,383	33.2	3,226	20.4	579,221	44.3	1,233,041	24.6
대기성자금	36,132	1.6	207,482	14.8	3,473	22.0	170,493	13.0	417,580	8.3	
합계	2,289,483	100.0	1,399,982	100.0	15,812	100.0	1,308,757	100.0	5,014,034	100.0	

□ 제도유형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 투자 증권	주식형	8,705	5.3	228,746	50.9	1,212	37.8	255,803	46.4	494,466	42.3
	주식혼합형	11,013	6.7	55,045	12.3	670	20.9	94,084	17.1	160,812	13.8
	채권혼합형	20,768	12.6	70,134	15.6	805	25.1	67,932	12.3	159,640	13.7
	채권형	108,268	65.5	51,470	11.5	280	8.7	74,279	13.5	234,298	20.0
	기타	4,524	2.7	16,406	3.7	59	1.8	23,312	4.2	44,301	3.8
	합계	153,278	92.8	421,801	93.9	3,026	94.4	515,410	93.5	1,093,516	93.5
부동산집합투자증권	1,307	0.8	256	0.1	1	0.0	659	0.1	2,224	0.2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126	0.1	2,908	0.6	20	0.6	2,606	0.5	5,659	0.5	
혼합집합투자증권	10,532	6.4	24,240	5.4	159	5.0	32,727	5.9	67,657	5.8	
합계²⁾	165,243	100.0	449,205	100.0	3,207	100.0	551,402	100.0	1,169,057	100.0	
TDF	3,564	2.2	73,438	16.3	813	25.3	123,142	22.3	200,956	17.2	
적격TDF ³⁾	3,452	2.1	73,275	16.3	811	25.3	122,728	22.3	200,265	17.1	
ETF	1,122	0.7	231,816	51.6	918	28.6	253,027	45.9	486,884	41.6	

주 : 1) 주식형 :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를 충족한 TDF

□ 권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은행)	1,124,123	43.1	66,118	5.0	44,344	5.0	5,739	3.4	6,044	13.2	1,246,368	24.9
	예·적금(저축은행)	159,208	6.1	40,841	3.1	2,718	0.3	569	0.3	4	0.0	203,339	4.1
	예·적금(우체국)	11,719	0.4	16,226	1.2	200	0.0	-	-	-	-	28,145	0.6
	예·타금(한증금)	11,934	0.5	24,322	1.8	-	-	298	0.2	-	-	36,554	0.7
	금리확정형 보험	399,958	15.3	211,948	16.1	594,743	67.7	139,684	82.8	32,343	70.4	1,378,677	27.5
	금리연동형 보험	2	0.0	102	0.0	46,893	5.3	8,094	4.8	1,610	3.5	56,702	1.1
	국채	756	0.0	34,106	2.6	-	-	-	-	-	-	34,861	0.7
	통안증권	-	-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1,112	0.1	-	-	-	-	-	-	1,112	0.0
	원리금보장형 ELB	146,303	5.6	173,195	13.2	44,338	5.0	7,037	4.2	-	-	370,872	7.4
	RP	-	-	6,162	0.5	-	-	-	-	-	-	6,162	0.1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363	0.0	209	0.0	77	0.0	-	-	-	-	649	0.0
	소계	1,854,366	71.2	574,341	43.7	733,312	83.5	161,421	95.7	40,001	87.1	3,363,441	67.1
	실적배당	실적배당형보험	0	0.0	-	-	9,346	1.1	2,033	1.2	656	1.4	12,035
집합투자증권		491,711	18.9	537,208	40.9	121,449	13.8	4,408	2.6	2,246	4.9	1,157,022	23.1
회사채 등		6,629	0.3	57,132	4.3	-	-	195	0.1	-	-	63,956	1.3
소계		498,340	19.1	594,339	45.2	130,796	14.9	6,636	3.9	2,902	6.3	1,233,014	24.6
대기성자금	252,890	9.7	146,364	11.1	14,596	1.7	690	0.4	3,040	6.6	417,580	8.3	
합계	2,605,596	100	1,315,044	100	878,704	100	168,746	100	45,943	100	5,014,034	100	

□ 권역별 집합투자증권 세부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권 집합 투자 증권 ¹⁾	주식형	191,333	38.9	273,188	50.9	27,497	21.0	747	11.6	1,701	58.6	494,466	42.3
	주식혼합형	103,773	21.1	44,894	8.4	10,480	8.0	1,664	25.8	0	-	160,812	13.8
	채권혼합형	82,974	16.9	56,304	10.5	17,545	13.4	1,956	30.4	860	29.6	159,640	13.7
	채권형	68,463	13.9	92,804	17.3	71,849	54.9	841	13.1	341	11.8	234,298	20.0
	기타	7,896	1.6	34,491	6.4	818	0.6	1,096	17.0	0	-	44,301	3.8
	소계	454,439	92.4	501,682	93.4	128,188	98.0	6,304	97.9	2,902	100.0	1,093,516	93.5
부동산집합투자증권	875	0.2	807	0.2	541	0.4	1	0.0	0	-	2,224	0.2	
특별자산집합투자증권	3,902	0.8	1,208	0.2	549	0.4	0	-	0	-	5,659	0.5	
혼합집합투자증권	32,495	6.6	33,511	6.2	1,517	1.2	135	2.1	0	-	67,657	5.8	
합계²⁾	491,711	100	537,208	100	130,796	100	6,440	100	2,902	100	1,169,057	100	
TDF	135,700	27.6	56,532	10.5	5,184	4.0	2,318	36.0	1,224	42.2	200,956	17.2	
적격TDF ³⁾	135,179	27.5	56,361	10.5	5,184	4.0	2,318	36.0	1,224	42.2	200,265	17.1	

1) 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주식혼합형 : 주식편입비율 40% 초과 60% 미만, 채권혼합형: 주식편입비율 0% 초과 40% 이하, 채권형 : 주식편입비율 0%

2) 실적배당형보험을 통해 투자된 집합투자증권 적립금도 포함하여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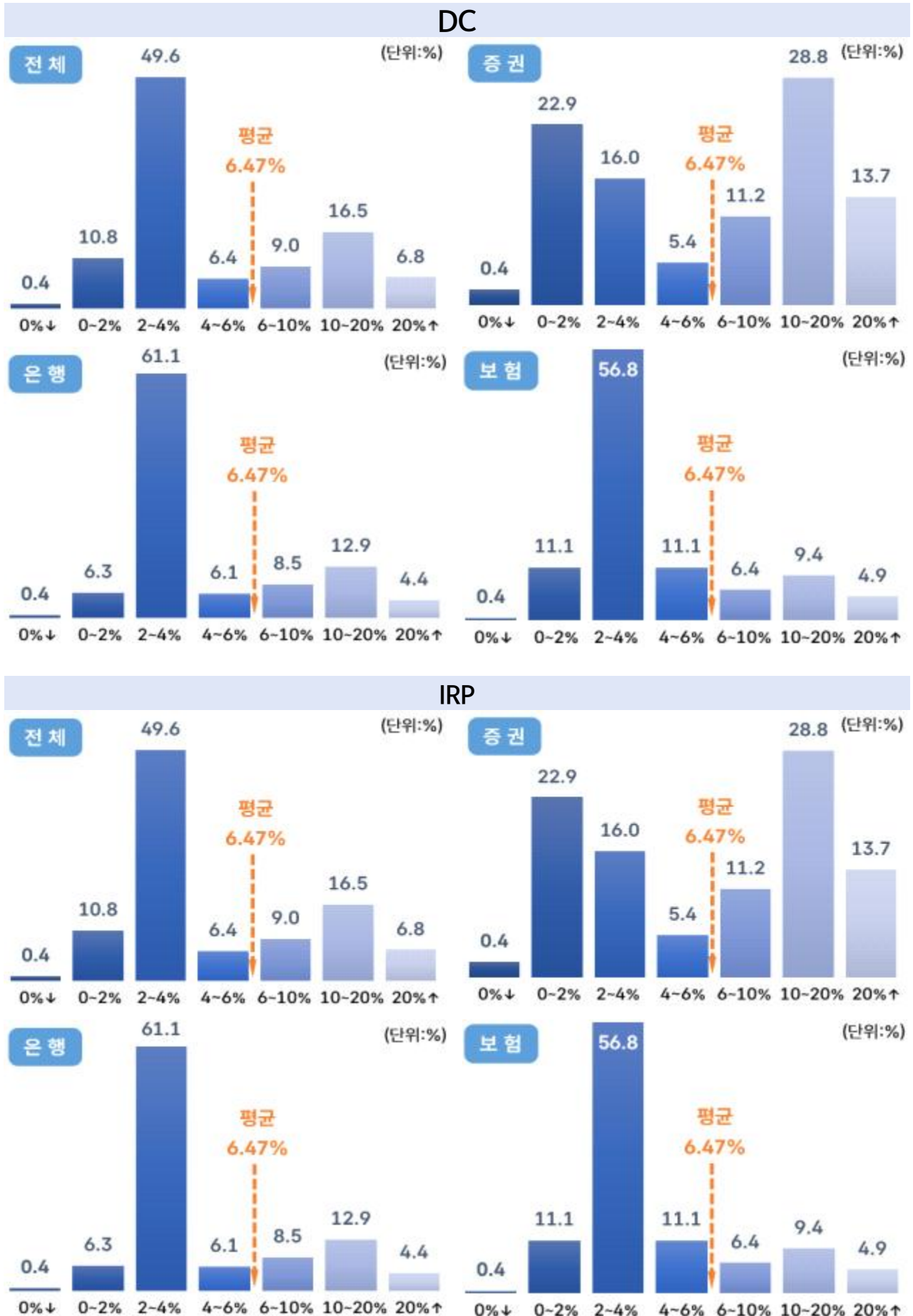
3)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를 충족한 TDF

3. 운용관리사업자별 · 제도유형별 적립금 및 점유율

억원, %	사업자명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전체	권역내점유율
은행 (12)	신한은행	187,280	154,302	2,030	195,133	538,744	20.7
	국민은행	131,117	156,418	4,560	192,444	484,539	18.6
	하나은행	188,604	132,087	5,019	162,622	483,815	18.6
	중소기업은행	131,267	151,210	1,761	34,759	318,997	12.2
	우리은행	118,138	80,797	941	113,100	312,976	12.0
	농협은행	129,422	72,844	2,212	62,716	267,194	10.3
	한국산업은행	81,586	5,637	1	1,316	88,540	3.4
	부산은행	18,357	9,411	196	7,141	35,104	1.3
	아이엠뱅크	13,278	11,190	428	4,948	29,835	1.1
	경남은행	12,156	7,703	643	4,901	25,404	1.0
	광주은행	6,987	9,304	1,119	3,038	20,448	0.8
	제주은행	-	0	0	0	3	0.0
	소계	1,018,192	790,903	18,910	782,118	2,605,599	100.0
증권 (14)	미래에셋증권	59,472	162,553	351	158,612	380,988	29.0
	현대차증권	164,012	7,427	0	20,465	191,905	14.6
	한국투자증권	79,621	53,374	192	74,302	207,489	15.8
	삼성증권	42,079	77,197	0	91,298	210,574	16.0
	NH투자증권	40,541	25,160	175	36,364	102,239	7.8
	KB증권	36,052	18,214	0	29,094	83,360	6.3
	신한투자증권	23,019	20,387	0	25,954	69,360	5.3
	대신증권	7,934	7,023	0	7,310	22,267	1.7
	하나증권	9,653	2,805	1	6,429	18,887	1.4
	아이엠증권	2,954	1,321	0	2,509	6,784	0.5
	한화투자증권	0	4,471	0	5,493	9,965	0.8
	신영증권	1,747	1,545	0	1,373	4,666	0.4
	우리투자증권	0	0	0	3,473	3,473	0.3
	유안타증권	340	828	34	1,887	3,089	0.2
소계	467,424	382,305	753	464,563	1,315,046	100.0	
생보 (10)	삼성생명	417,290	86,810	339	39,815	544,253	61.9
	교보생명	100,552	37,934	39	7,988	146,513	16.7
	한화생명	61,259	8,766	15	2,063	72,102	8.2
	미래에셋생명	34,392	17,110	0	4,573	56,075	6.4
	푸본현대생명	15,456	363	0	45	15,865	1.8
	IBK연금보험	7,094	4,550	178	2,570	14,391	1.6
	흥국생명	11,130	1,993	0	121	13,244	1.5
	동양생명	10,066	619	0	132	10,817	1.2
	신한라이프	1,347	520	0	62	1,929	0.2
	DB생명	2,773	669	0	72	3,514	0.4
소계	661,359	159,334	571	57,441	878,703	100.0	
손보 (6)	삼성화재	64,153	10,068	0	2,459	76,680	45.4
	KB손보	35,763	5,313	0	1,143	42,219	25.0
	DB손보	20,601	974	34	164	21,772	12.9
	현대해상	13,366	2,906	0	523	16,795	10.0
	롯데손보	8,611	2,342	0	313	11,267	6.7
	한화손보	13	0	0	0	13	0.0
	소계	142,507	21,602	34	4,603	168,746	100.0
근로복지공단	0	45,837	64	41	45,943	100.0	
합계	2,289,483	1,399,982	15,812	1,308,757	5,014,034		

주)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는 총 46개사(은행 13, 증권 15, 생보 11, 손보 6,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북은행·DB증권·하나생명은 운용관리 실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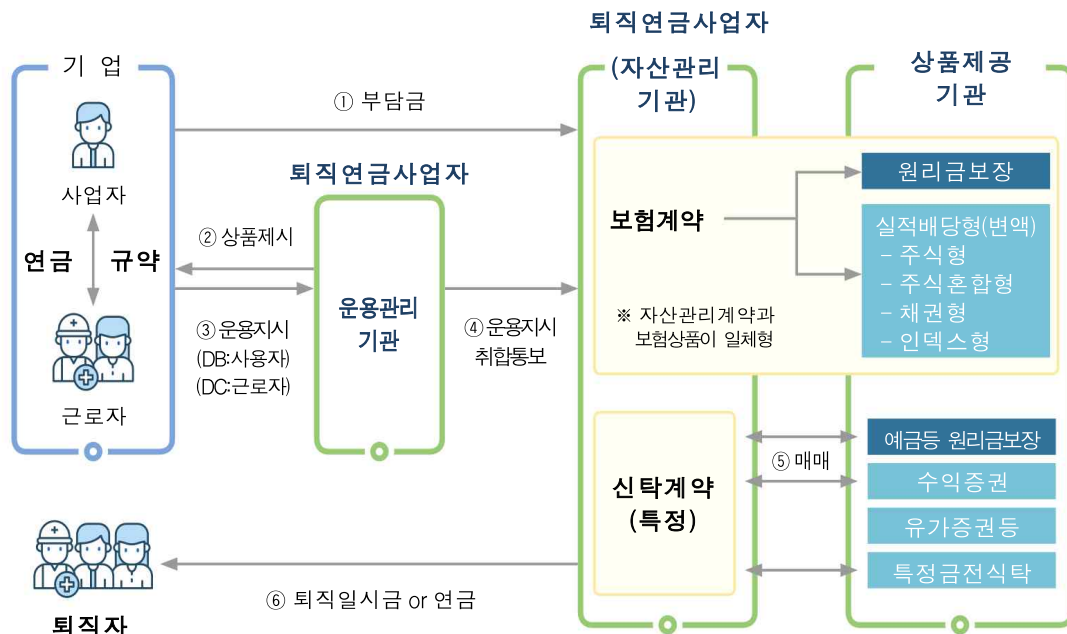
4. 수익률 분포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1/12 상당 금액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 **기업형IRP:**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자별 IRP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 퇴직 시 수급한 퇴직 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
- **수익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수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수익을 직전 1년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 단, 비용(수수료 등)은 적립금 총액 계산 시 제외
 - 3년, 5년, 7년, 10년 적립금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
 - * N년 기준 기하평균 수익률 $R_n : [(1+r_1) \times (1+r_2) \times \dots \times (1+r_n)]^{(1/n)} - 1$
- **총비용부담률:**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을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해당연도 총비용을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 총비용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 총비용
 - ** 평균적립금 = 매일의 적립금 합계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일평균적립금